

# “택시 전액관리제, 시민 이익 부합”

**서윤근 전주시의원 5분 발언**  
**“택시가 움직이기만 하면 수입 무관 사납금 발생 사납금제로 하루 16시간 한달 수입액 최대 171만원 시민 피해로 전가돼 폐지를”**



자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에서 “법에 근거한 행정권 행사 전주시장의 권한임과 동시에 책무이다”며, 전주시의 택시 전액관리제 시행의 행정권 발동을 주문했다. 전액관리제라 함은 운수종사자가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입금하면 회사가 운수종사자에게 일정한 급여를 주는 제도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제21조와 제26조를 통해 ‘운수사업자는 운송수입금 전액을 운수종사자에게 받아야 하며, 운수종사자는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송사업자에게 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국토부 훈령 제624호를 통하여 전액관리제시행요령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서 의원은 “너무나도 보편타당해 보이는 전액관리제가 굳이 법으로 규정되고 있지만 지금까지도 시행되지 않고 논란이 계속되는 것은 소위 ‘사납금제’라고 하는 택시업계의 고질적인 임금관행때문이다”며 “이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야 할 우리사회의 고질적 적폐중 하나”라고 역설했다. 이어, “택시 사납금제도는 택시가 차고지에 있지 않고 움직이기만 하면 운송수입과 무관하게 사납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택시회사 사업주는 택시운수업을 하는 것이 아닌 택시 임대업을 하는 것과 같다”며, “택시 회사의 질 좋은 서비스와 효율적 경영전략은 회사수입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택시기사의 하루 평균 노동시간이 무려 16시간으로 나타나는 1인 1차제에 대해서 “전주 법인택시 97%가 택시기사 1명이 시간의 제한 없이 혼자서 하루 종일 운행을 하는 1인

차제를 하고 있다”며, “사실상 밥 먹고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계속 운행을 하는 것인데 이는 운수종사자의 건강을 말할 것도 없고 일상적 수면과 휴식부족에 의한 졸음운전과 집중력 저하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불법적 사납금제 그리고 사납금제와 연계된 장시간 택시노동은 결국 전주시민들의 피해로 전가되고 있다”며,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59조 전액관리제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위반 사례에 대해 “지난 8월2일 전주시는 이 법을 위반한 19개 회사에 1차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이는 늦었지만 너무나도 당연한 행정권의 발동”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 지방노동위원회는 대립 교통의 전액관리제 도입 및 임금협약 중재안에 덧붙여 전주지역 모든 택시업체의 전액관리제 도입을 촉구 하고 있다. /송효철 기자

## 탄소분야 국제연구 네트워크 확대 나서

**탄소융합기술원, 독일 드레스덴공대 ILK연구소와 전주서 MOU 체결**

대한민국 탄소산업의 시작이자 중심지인 전주시가 탄소분야의 국제연구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나섰다. 전주시 출연기관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23일 기술원 탄소기술교육센터에서 탄소섬유강화플라스틱 분야의 세계 최고수준의 연구기관인 독일 드레스덴 공대 ILK(Institute of Lightweight Engineering and Polymer Technology) 연구소와 공동으로 ‘국제탄소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한국과 독일의 탄소복합재 전문가와 현대자동차, 삼양사 등 기업인, 알렉산더 레너 주한 독일대사관 과학참사관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탄소섬유 복합재 관련 최신 연구결과물이 발표됐다. 이 자리에서 독일 드레스덴공대 ILK연구소에서는 경량화를 위한 탄소섬유 복합재 관련 주제들에 대해 발표했으며, 기술원에서는 CNT소재 를 이용한 응용분야와 재활용연구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또한, 이번 컨퍼런스에는 독일 MAI

Carbon과 국제협력 사업을 진행중인 전북대와 전주대에서도 참가해 탄소 복합재 비파괴검사와 표준화 분야에 대해 발표함으로써 대한민국 탄소 연구기관의 기술력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됐다. 이와 관련, 기술원과 컨퍼런스를 공동개최한 독일 드레스덴 공대 ILK 연구소는 매년 해외를 순회하며 자신들의 연구 분야 및 성과를 발표하는 프로그램인 Travelling Conference(트래블링 컨퍼런스)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과 컨퍼런스를 공동개최한 바 있다. 올해는 국내 유일의 탄소산업 전문연구기관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올해의 파트너 기관’으로 선정돼 이번 공동 컨퍼런스 개최를 준비해왔다. 기술원은 컨퍼런스 개최 전날인 지난 22일에는 독일 드레스덴공대 ILK 연구소의 ‘상호 학술교류 및 공동 기술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골자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양 기관은 연구진 교환과 국제공동연구 추진 등을 통해 한-독 탄소산업 공동발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게 된다. /송효철 기자



**옐로카펫 설치 협약** 전주시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북분부는 23일 전주시장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소동하 본부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한 어린이 통학 환경을 위한 옐로카펫 설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전주 맑은물사업본부, 오늘 용담호서 전주시민 워터투어

전주시가 시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받고 마실 수 있도록 수돗물 안전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전주 맑은물사업본부는 24일 전주지역 초등학교 교장·교과과 수돗물 평가위원 등 22명과 함께 전주 수돗물 교유 브랜드인 ‘전주 얼수’의 상수원인 용담호와 고산정수장 생산시설을 찾아가는 ‘전주시

민 워터투어’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참석자들은 이날 전국에서 깨끗하기로 손꼽히는 상수원인 용담호의 수질상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전주시에 생산량의 52%를 공급하는 고산정수장 수돗물 생산시설을 체험함으로써 매일 실시간 철저한 수질검사와 수질감시를 통해 공급되는 안전한 수돗물을 확인하게 된다. /송효철 기자

## 쓰레기 더미가 아름다운 정원으로

**전주시, 주부환경감시단과 취약지구 7곳에 꽃 심어**

열섬현상과 미세먼지 걱정 없는 천만그루 가든시티 조성에 나선 전주시가 쓰레기 불법투기지역을 아름다운 정원으로 가꿨다. 시는 전주시 주부환경감시단(회장 조정희)과 함께 천만그루 가든시티 조성을 위한 시민의식 전환을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가 고질적으로 행해지던 취약지구 7개소를 대상으로 아름다운 정원으로 변모시키는 게릴라가드닝 사업을 추진했다고 23일 밝혔다. 게릴라가드닝이란 ‘남의 땅을 허락 없이 구하지 않고 불법으로 점유한 뒤, 그곳을 정원으로 꾸미는 행위’를 의미하며, 지난 1970년대 미국 뉴욕의 예술가 리즈크리스티가 친구들과 지저분한 공간의 쓰레기를 치워 버리고 꽃밭을 조성하면서 유래됐다. 시와 주부환경감시단은 쓰레기가 버려진 곳이 방치되면서 쓰레기 집하장처럼 돼버린 도심 속 자투리 공간을 게릴라가드닝으로 꽃밭으로 조성함으로써 불법투기도 막고 도시 새 생명을 불어 넣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게릴라가드닝을 통해 식재되는 식물은 값비싼 다년생 식물보다는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큰 꽃이 피어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수 있는 일년생 초화식물과 채소류를 이용하고 있다. 이는 사후 관리 측면은 약하지만 우범화되거나 쓰레기 더미로 변할 수 있는 도시의 미관에 변화를 줄 수 있는 효과가 크기 때문이며 이러한 활동을 추진하게 된 것은 땅소유주에게 땅



에 대한 올바른 관리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이는 땅이 비어 있는 상태로 오랜 시간 동안 방치될 경우, 거리의 유리창 하나가 깨진 채 방치될 경우 모든 거리가 슬럼화된다는 ‘깨진 유리창 이론’처럼 대부분 지저분한 공간을 게릴라가드닝으로 꽃밭으로 조성함으로써 불법투기도 막고 도시 새 생명을 불어 넣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게릴라가드닝을 통해 식재되는 식물은 값비싼 다년생 식물보다는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큰 꽃이 피어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수 있는 일년생 초화식물과 채소류를 이용하고 있다. 이는 사후 관리 측면은 약하지만 우범화되거나 쓰레기 더미로 변할 수 있는 도시의 미관에 변화를 줄 수 있는 효과가 크기 때문이며 이러한 활동을 추진하게 된 것은 땅소유주에게 땅

### 검찰, 군산 유흥주점 방화범에 ‘사형’ 구형

지난 6월 전북 군산의 한 주점에 불을 질러 34명의 사상자를 낸 피고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3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이기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 이모(55)씨에 대해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범행 대상을 탐색한 후 불을 질러 수십명의 사상자를 냈다”며 “이 사건 범행은 반성하는 태도가 없고 보복살인, 약자대상 범행, 위험물 사용 등으로 극단적 살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구형에 앞서 사건 피해자와 유족은 “화재로 가족과 삶의 의미를 잃었고, 후유증이 너무 크다”면서 이씨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씨는 지난 6월 17일 오후 9시 53분께 군산시 장미동의 한 유흥주점 입구에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해당 주점 안에 있던 손님 중 5명이 일산화탄소 중독 등으로 숨지고 29명이 부상을 입는 등 3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1월 29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뉴스

## 제3회 전주한옥마을 통기타 라이브 음악 풍경

10월 27일(토) 오후 6시

전주 한옥마을 특설무대

주최: 사)전북문화진흥원

주관: 사)전북문화진흥원

문의: 사)전북문화진흥원  
(☎ 063-288-9700)